

지난주 침례 인수	2016년 인천 교회 나아갈 방향 모든 성도가 신성한 편신 안에서 부흥되어 하나님-사람 생활을 살고 열매 맺는 해	2016 침례 인수
0명		20명

인천 교회 기도 제목	몸의 요청 기도 제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인수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신실하게 가게 하소서. ○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일으키소서. ○ 영피플집회(7/29~31)를 축복하소서. ○ 여름훈련 비디오집회를 축복하소서. ○ 목회자세미나를 축복하소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복 안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제사장직분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 낯한 땅에서 만 명의 다음세대 제사장들을 일으키십시오. - 남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새 길을 실행하여 새로운 부흥에 이르게 하십시오. - 북한 땅에 복음을 확산하십시오. -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 모든 건축 과정을 인도하십시오.

◆ 교회소식

《인천 교회 집회 안내》

1. 매월 첫째 화요일 기도 실행 안내

* 일시 : 7.5(화) : 몸의 요청 기도 참조

2. 자매 집회 : 2016.7.6(목) 오전10시 산곡동집회장소

3. 목회자 세미나 (갈라디아서 2차)

- ① 일 시 : 7.5~7.26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3시
- ② 장 소 : 학생센터
- ③ 대 상 : 목회자, 복음친구, 성도들
- ④ 회 비 : 30,000원(중식 및 교재비포함, 대학생 회비없음)

4. 제 5회 영피플 집회

- ① 일 시 : 7.29(금) ~31(주일)
- ② 장 소 : 춘천 아름다운 세상
- ③ 대 상 : 중고등부, 대학생, 청년, 직장인, 봉사자, 학부모, 다음세대 관심있는 모든 지체들
- ④ 회 비 : 중고등부, 대학생 30,000원 어른 70,000원
1박2일 참석자 40,000원
- ⑤ 신 청 : 각 지역 중고등부 봉사자

◆ 지난주 집회 인수 현황 (2016.06.20(월) ~ 2016.06.26(주일))

지역	1지역 (79명)				2지역 (106명)				3지역 (100명)			4지역 (107명)				5지역 (111명)			6지역 (56명)		7지역 (18명)		계																
	학	인	신	청	간	구	만	장	주	연	동	가	석	신	가	정	정	정	산	부	정	효		작	계	신	문												
인수목표	120				157				144			154				146			82		40		803																
주역상	17	14	17	10	10	11	11	15	8	21	15	11	19	6	24	15	21	22	13	7	7	13	18	10	11	8	12	8	36	29	24	22	15	14	13	14	8	10	577
기 도	7	7	8	2	4	3	3	7	2	6	4	9	6	11	9	9	8	6	4	3	11	5	6	5	6	5	7	14	12	8	8	6	9	5	5	6	6	225	
그 루	6	5	6	20	10	7	3	6	4	7	9	14	6	11	16	10	8	5	3	3	10	7	8	7	7	3	8	13	15	14	10	6	12	6	8	8	8	301	
아침부흥	8	8	8	7	2	3											8	5					2				10	23	16	13	11	7	6	4	8			149	
어린이	11				18				9			17				12			8		5		80																
야생초대												4				7					5		16																
중고등부	8				4				10			11				11			8		4		56																



인천 교회 소식

WEEKLY LETTER OF CHURCH IN INCHEON

집사실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4번길 40

홈페이지 주소 : www.icchurch.or.kr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말씀하십시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명절을 지낼 것이다'
(출애굽기 5장 1절)

2016. 07. 03. 16-27

032-566-0190 FAX 032-567-0190

E-mail : triume@nate.com

2016년 봄 장로 국제훈련 집회 메시지5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인성

빌1:20-21 나의 간절한 기원과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메시에 님에 대하여 삼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성은 우리 속을 채우는 신성한 속성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우리가 창조 시에 받았던 속성들도 포함한다. 사람이 창조되던 당시 그에게는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한 형상만 있었다. 즉 그에게는 이러한 속성들의 내용과 실재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우리 모두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내용이 되시게 해야 한다.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때 우리는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는 것이다. 이것은 신성으로부터 나와 인성을 통해 표현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지녀야만 하는 인성이다.

신성한 본성은 근원과 내용이며 인간의 본성은 표현과 모양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성의 의미이다. 또한 그것을 도덕 또는 미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일종의 그리스도인의 성격이고 주님의 모든 종이 누구나 지녀야 하는 것이다.

최고의 도덕성은 신성이 우리의 인성에 더해진 도덕성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들이 사람의 창조된 미덕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가장 탁월한 미덕이다. 성경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개인적인 체험에 따르면 이러한 뛰어난 미덕들에는 일곱 가지 항목이 있다. 사랑은 이 탁월한 미덕들 중에 첫째 항목이다. 이 사랑은 비범하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마 5:44). 관용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한해야 한다. 좁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기까지 관용해야 한다. 우리의 체형에 따르면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 예를 들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내게 잘못을 범했다는 것은 잊어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주님은 복음서들에서 우리를 위해 좋은 본을 보이셨다.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끊임없는 비난을 퍼부었을지라도, 그분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그분의 마지막 행동은 사람을 위한 기도였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눅 23:34) 이것이 무한한 관용이다. 우리는 일관성 있게, 그리고 신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나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비할 데 없는 신실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겸손은 절대적이어서야 한다. 우리는 다만 겸손해서는 안 된다. 비하(卑下)가운데

저해야만 한다. 겸손하다는 것은 낮게 되는 것이지만, 비하한다는 것은 작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만 깨닫혀서는 안 된다. 샘물처럼 순수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할 수 없이 최고도로 순수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극히 거룩해야 하며 사람에게 대해서는 지극히 의로워야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완전히 분별되어야 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허물도 없이 온전히 합당해야만 한다. 이것이 지고한 거룩함과 의이다. 첫째 항목은 사랑이고, 마지막 항목은 빛이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하는 밝음은 세상이 말하는 밝음과 다르다. 여기서는 빛을 의미한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빛 가운데 있어야하고 어둠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정직하고 솔직해야하며 어떤 점에서든 편협하거나 의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일곱 항목들이 모두 더해질 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합당한 인성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성은 신성한 속성들과 창조된 인간의 도덕성의 연합을 통해 살아 나타낸 생명이다. 우리가 되돌아가거나 빛나가지 않고 우리의 일생동안 그분을 삼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합당한 인성을 살아내게 바란다.

그리스도인의 인성은 우리의 타고난 미덕들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사시고 우리로부터 살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이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아담에게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 한 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리한다(마13장). 우리의 마음은 토양과 같아서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기 위해 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예수님 안에 있다(고전1:30). 우리를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오늘날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빌3:9). 더욱이 삼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확대되셔야 한다(빌 1:20).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성이다.

오늘날 우리는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 참됨과 장중함과 의로움과 순수함과 사랑스러움과 평안이 좋음(빌 4:8). 이 여섯 가지 미덕을 하나하나씩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성취하기가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미덕들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건강함과 합당한 인성을 살아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서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 살아 나타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그러한 인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길 자격이 있게 된다. 일단 우리가 이 인성을 잃는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섬길 위치와 권리가 없게 된다. 둘째로, 나는 여러분이 아직은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최소한 육십 년을 여러분 보다 앞서 있다. 나는 이러한 길에 매우 익숙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 있다. 이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 “늘 푸른 하늘 향기로운 길”을 맑은 하늘 허락 없네”(찬송가526장). 이러한 이유에서 여러분은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하고, 합당한 인성이신 그리스도를 인성으로 붙잡음으로 이러한 생활을 지속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인성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인성이 보호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들을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새 길을 통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생활은 우리로 합당한 상태 안에 머물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상적이고 합당한 인성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마가복음 4장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맞은 편으로 건너가실 배 안에 앉아 계셨던 것을 묘사한다.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쳐 배 안으로 들어와 가득 차게 되었다. 제자들은 매우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배의 뒷부분에서 배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막 4:37-38). 작은 배의 뒷부분은 가장 쉽게 요동치는 부분이다. 요동치는 것이 심했을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평안하게 주무셨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짧은 여행에서 조차도 여전히 작은 폭풍우와 높이 이는 물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를 버렸다고 말했다(15절). 4장도 우리에게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준다(10절). 더욱이 일렉산더는 바울에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다(딤후4:14). 바울과 하나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있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드리다. 그와 하나였던 디모데가 여전히 있었다.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어떤 낙담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인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내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딤후4:7-8) 그분의 나타내심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갖는 영역 안에서 보호받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틀림없이 보상을 받을 것이다.

소제물의 주된 요소인 고운가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곱고 온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혔으며 모든 면에서 합당하여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간생활과 일상의 행동이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것을 상징한다. 소제물의 고운가투는 많은 과정을 거친 밑에서 얻어지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그분을 ‘슬픔의 사람’(골3:3)으로 만들었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다양한 고난들을 상징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인간생활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 오직 그분만이 그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로 읽음으로써 예수님을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며, 그 영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양공급이신 예수님을 공급한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먹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으로 더 많이 조성된다. 우리가 주님의 인간생활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활은 우리의 생활이 된다. 자연히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음식이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생활을 하게 된다.

천오백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한 책, 곧 성경을 준비하셨으며 그 책을 우리 손에 쥐어주셨다. 그분은 또한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영은 안에 있으며 책은 밖에 있다. 이 두 가지가 더해진 것이 바로 인생을 사신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말씀을 기도로 읽을 때,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고 그리스도의 인간생활을 누린다. 이것이 소제물이다.

생명의 흐름을 갖기 위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인성을 마셔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만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높여진 인격의 영, 즉 높여진 사람의 영을 마셔야 한다.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영만을 마신다는 것이지만,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만일 우리가 물론 마신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차(差)가 부족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차를 마셔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을 마셔야 한다.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한 사람이신예수님을 마셔야 한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다. 남치는 공급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빌 1:19).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천연적으로 인간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인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가련하고 타락한 그러한 인성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취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예수님의 인성의 표준까지 높아져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생명의 성장과 생명의 흐름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 안에 있다. 다른 이들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흐름은 생명이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영을 마신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생명의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한 생명의 흐름은 항상 예수님을 들이 마시는 생활이다. 이러한 생활은기적적이고 신성하고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소금의 기능은 어떤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부패시키는 요소들을 죽이는 것이다. 오늘날 땅은 너무 많이 부패했다.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부패시키는 세균들을 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소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한 소금의 기본적인 요소는 다음 아니라 예수의 인성이다. 우리의 매일의 행함 속에서 예수님의 인성은 하늘에 속한 소금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의해 살수록 우리는 더 짜게 될 것이다. 이 인성에는 부패시키는 모든 세균들을 죽이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적용하고 체험하며 이 인성에 의해 살수록, 우리는 부패되었고 또 부패시키는 이 세대에 더욱 더 소금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한다. 그것은 다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치는 문제가 아니라 절이는 능력을 지닌 소금이 되는 문제이다. 우리 모두는 매일의 행함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적용함으로 실지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의 양식에서 발췌)

하나님이 오늘날 필요로 하시는 사역(2)

딤후4:2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배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4) 연대(煙臺)에서의 교회의 복음 전파의 간증

1941년에, 연대에서 반 년 동안 우리의 인수는 배로 증가했으며, 매달 침례 받는 사람이 있었다. 물론 개개인 모두가 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나는 거의 대부분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다. 4월에는 단지 백 명밖에 없었는데 연말에 가서는 육백 명이 되었다. 우리는 복음지 이십 만장을 인쇄하여 연대에서 이십만 명에게 나누어 주었고, 큰 거리마다 커다란 표어를 붙였으며, 특별히 형제자매의 집에는 더 많은 표어를 붙였고 심지어는 담배곽을 빌어서 표어를 붙이기도 했다. 저녁에는 등불 든 사람과 아코디온을 연주하는 사람이 함께 짝을 지어 복음을 전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복음 소책자를 전하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큰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복음을 전했다. 음력으로 그 해 마지막 며칠 동안은 전 교회가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다. 1943년에는 며칠 만에 천 이백 명이 구원받기도 했다. 형제자매들은 재물과 집과 밭을 모두 내놓았다. 1월 초부터 시작하여 전교회가 일어나 복음을 전했다. 적어도 팔십 퍼센트의 형제들이 동원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설을 쇠지 않았다. 어떤 이는 기도하고 어떤 이는 사람을 청해 왔다. 해마다 우리는 적어도 몇 백 명을 구원시켰으며, 침례 받은 사람도 최소한 일백여 명이 되었다. 침례 받은 후, 형제자매들에게 그들을 심방하도록 분배했으며, 심방한 후에는 돌아와서 상황을 보고했다. 해마다 연초에 씨를 뿌린 것이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는 수확하기에 이르렀다. 중국인이 설을 쇠는 것은 마귀와 사귀는 것으로, 그들은 설을 칠 때에 우상을 불러서 절을 한다. 우리가 설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잔뜩 차려서 먹고 마시면서 설을 쇠지만,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날 그저 간단한 식사만을 했다. 후에 공산당이 연대를 점령한 후에도 형제자매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1943년에는 연대에서 전한 그 복음은 주님의 큰 축복이 있었다. 내가 강단에 서서 말한 시간은 이십여 분밖에 안 되었다. 모두가 복음성이 「헛되고 헛되네」를 부르는 동안 성령은 이미 역사하셨으며, 주님을 믿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 달라고 말하자 온 회중이 모두 일어섰다. 높은 굽의 구두를 신은 한 부인이 복음을 들고서 왔다. 그때 나는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당신은 남편에게 돈이 많지 않은데도 여전히 그에게 이것저것을 사달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 집회가 끝난 후에 이 부인은 한 자매에게, 「어떻게 이 선생님이 나의 일을 알지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후에 그녀는 주님을 믿게 되었다. 또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손가락으로 한 아이를 가리키면서, 「너는 학교의 분필을 훔쳐다가 집에 가지고 가서 동그라미를 그렸다.」고 말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학교의 분필을 훔쳤고 또 정말로 집에 가져가서 동그라미를 그렸었다. 그는 속으로, 「이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말했다. 나는 계속해서 강단 위에서 「너는 마음속으로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야. 두렵지 않아.」라고 말했다.」라고 하였다. 이 아이는 이 말을 듣고서 즉시 주님을 믿었다. 그때 그 기간에는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주님으로 총만 되었고 또한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많은 새로운 형제자매들이 들어오게 된다. 새로운 형제자매가 들어오면 오래된 형제자매들도 살아날 것이다.

2. 부흥

두 번째 방면은 부흥의 사역이다. 일단 사람이 믿으면, 우리 는 그들이 노인이든 젊은이든 모두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형제자매들이 주님에 대해 더 많은 사랑의 표시를 갖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우리의 금전과 시간과 힘은 모두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연대에서 그 몇 년간 구원 받은 사람이 많았을 때에 우리는 많은 가정 집회를 갖기 시작했다. 형제자매들은 또한 심방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이후에 부흥이 일어나서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쳤다. 봉헌한 재물을 기록하는 일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진행되었고, 봉헌한 것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재물이 드러났다.

삼십여 세가 된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녀의 남편은 왕(王) 씨 성을 가진 형제였다. 그는 연대에서 매우 부자였으며 시골에도 그의 집을 여러 채 있었다. 그러나 남편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며 집회에도 자주 나오지 않았었다. 우리가 처음 일개월 정도 부흥 집회를 가졌을 때, 남편은 그저 몇 번 온 정도였다. 한 번은 그가 왔을 때, 나는 그에게 간증해 줄 것을 부탁하려고 했다. 그때 마침 나는 이사야서 1장과 예레미야 8장에서, 「소는 그 입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긴마는 나의 백성은 오히려 나를 알지 못하고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아는데 나의 백성은 도리어 여호와와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읽고 있었다. 나는, 집회에 오기 전에 이 왕 형제와 그의 아내가 이미 부동산을 봉헌하기로 약속하고 준비한 것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 그 아내는, 「이 형제님은 별로 집회에서 사람을 지적하여 간증을 시키시지 않는다. 이번에 만일 이 형제님이 나의 남편을 지적하여 간증하게 한다면, 그것은 봉헌하는 일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주님의 인도는 기묘하게도 바로 그날 나로 그의 형제에게 간증해줄 것을 요청하게 하셨다. 그 날 한 젊은 형제도 집회에 오기 전에 이사야서 1장과 예레미야서 8장의 같은 단락을 읽었었다. 그는 그 단락들의 말이 매우 의미 깊다고 느꼈으며, 사람은 나귀나 학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했다. 후에 이 형제는 집회에 와서 내가 그 두 단락의 말씀을 말하는 것을 듣고서는 내가 그 말을 보고 했다고 생각했다. 교회가 만일 부흥되지 않는다면 모든 가르침은 죽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려 한다면, 상처를 입기까지 해야 한다.

3.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감

세 번째 사역은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생명 안으로까지 이끄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흥을 위함이며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다. 사람이 만일 재물을 사랑하고 사업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먼저 복음으로 말미암고 그 다음은 부흥으로 말미암는다. 부흥의 주된 일은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많은 부흥회는 단지 흥분하는 분위기만을 야기할 따름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이십이 년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1943년의 연대에서의 부흥과 같이 그렇게 깊은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때에는 집회 중에 때로 말이 없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말한 것이 사십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가리운 것이었음을 느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야 하고 또한 부흥이 있어야 한다. 복음이 없고 부흥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